

휴가철 쓰레기 관리 만전... '깨끗한 피서지' 만든다

환경부, 전남도·국립공원공단 등 내달 31일까지 해수욕장·계곡에 분리수거함·기동 청소반 등 운영

환경부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남지역 해수욕장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깨끗한 피서지 만들기에 나선다.

환경부는 28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남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먼저 전남도 등 지자체는 오는 8월 31일까지 주요 피서지에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동 청소반을 운영해 주민과 피서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 계곡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에 나선다.

피서객들 가운데 해수욕장 등 휴가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매립·투기 등 위반행위 별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휴가철을 맞아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을 찾은 시민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부산시 등 8개 시도에서는 2602명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반을 운영, 3144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3억 63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터미널 등 휴가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홍보활동도 진행할 방침이다.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핵심인 비운다·행군다·분리한다·섞지 않는다 등 4가지 방법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해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서객을 대상으로 사용한 마스크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올해 여름 휴가철에는 쓰레기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쓰레기 줄이기와 되가리기, 올바른 분리배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 무등산 평두메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야”

녹색연합 등 4개 환경단체 주장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이 무등산 국립공원 평두메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8일 광주전남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빛가람지킴이 등 4개 환경단체는 “평두메습지의 보전·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지역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시민 등 총 25명이 참가해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광주시 북구 화암동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의 식물, 식생, 양서파충류, 곤충, 조류 5개 분야의 자연생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조사에서도 발견된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 팔색조와 특정식물 4등급 낙지다리의 서식을 재차 확인했고, 추가로 천연기념물 324-3호인 솔부엉이의 서식도 확인했다.

이들은 “평두메습지는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양서파충류의 서식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공원 북방산개구리의 최대 산란지이기도 하다”면서 “하지만 버드나무 군락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육지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생태교란종인 환삼덩굴, 외래종인 개망초 등의 분포가 넓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기후위기시대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해 주고 바람길의 되며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주는 습지의 역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도시의 개발로 도심습지가 매년 평균 1개의 저수지가 매립되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도시의 습지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습지보존위원장은 “이번 시민조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평두메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평두메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적인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상수도 계통 ‘유충 없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107곳 점검

‘24시간 대응팀’ 꾸려 안전 대응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8일 “광주와 전남 등 담당 지역 상수도 계통에는 유충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6일 이틀 간 광주, 전남 내 상수도 107곳을 점검한 결과 유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했다.

영산강환경청은 또 최근 접수된 수도물 유충 민원 7건을 분석한 결과 상수도 공급계통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이 발견한 생물들은 나방파리 유충, 잠벌레, 쌀벌레 등으로 위생관리가 소홀한 생활환경에서 유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산강환경청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른 수도물 유충 발견 신고를 계기로 수자원공사와 ‘24시간 대응팀’을 꾸렸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은 최근 지역내 정수장을 찾아 수도물 위생상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재까지 우리 지역의 수도물은 유충으로부터 안전하다”며 “긴장

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서구 폭염대비 취약계층 2500명 쿨타올 등 ‘힘내요 꾸러미’ 배부

광주시 서구가 지역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슬기로운 여름나기를 위한 ‘힘내요! 꾸러미’를 배부한다. <사진>

서구는 건강취약계층의 슬기로운 여름나기를 위해 마스크, 쿨타올, 손수건 등으로 구성된 ‘힘내요! 꾸러미’와 건강관리 관련 안내문을 제작했다.

꾸러미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 보건소에서 등록관리중인 재가암환자 등 2500여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구는 또 폭염 대비 집중건강관리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방문간호사들은 동별로 보건소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안부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등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풀뿌리 공익활동지원사업

광주인권평화재단, 참여자 공모

광주인권평화재단(이사장 김희중 대주교)은 ‘풀뿌리 공익활동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사회에서 민주·인권·정의·평화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치·사회·제도적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과 연대하고 소통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청분야는 인권과 평화, 환경, 지역자치 등이며 지원규모는 사업별 500만원 이내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2일까지로, 결과는 오는 10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인권평화재단 홈페이지(www.ghpf.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234-273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